

식민지 근대와 ‘취미’ 개념의 형성*

문경연 | 경희대학교 강사

■ **논문분야** 한국 근대사, 문화연구

■ **주 제 어** 식민지 근대, 개념, 취미, 테이스트, 취미화(趣味化), 근대 대중문화, 제국-식민, 근대인, 계몽

■ **요 약 문**

본고는 한국 근대시기에 문화의 장에서 ‘개인’이 존재감과 정체성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기축이 되었던 ‘취미(趣味)’ 개념의 형성과정을 고찰하였다. 취미 역시 여타 개념어들처럼 근대에 새로 만들어진 말로, 개화기에 등장한 ‘趣味’는 많은 경우 전통적인 미학 용어인 ‘치(致), ‘풍류(風流), ‘벽(癖)’의 흔적이 남아 있는 개념이었다. 여기에 개화기의 문명관과 서구 취미론의 영향을 받은 일본의 번역어 ‘취미(taste)’의 영향을 받으면서 개념이 확정되고 변전되는 역동성을 드러냈다.

1910년대 취미 담론은, ‘취미’ 개념의 분화와 확정이 가치중립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취미의 제도화가 식민지 근대의 권력 작동과 직결되었음을 보여 준다. ‘취미’의 특성상 개인의 신체와 영혼을 섬세하게 재단하는 규율권력이 될 소지가 많으며, 미시적인 차원에서 개별적 주체를 생산해 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개화기 이후 1920년대까지가 ‘취미’ 개념의 정착과 문화의 형성시기였다면, 1930년대에 이르러 취미는 대중문화의 성장과 함께 급속도로 분화되었다. 담론의 차원에서는 ‘신문화’와 ‘개조’라는 시대정신이 현현되는 방식으로서의 ‘취미성(趣味性)’이 강조되었지만,

* 본고는 『개념과 소통』(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편집진의 요청에 따라 필자의 박사학위 논문 「한국 근대초기 공연문화의 취미(趣味) 담론 연구」(2008)의 일부 내용을 ‘취미’ 개념의 형성 과정을 중심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접수일(2011.6.3), 심사 및 수정(2011.6.21), 게재확정일(2011.6.23)

현실의 차원에서는 즉흥적이고 감각적인 '오락성(娛樂性)'이 대중의 일상과 취미문화를 장악해 갔다. 한편 대중문화의 영역 외에, 식민지 교육체제와 <수신(修身)> 교과서 안에서 근대적 '취미'를 향유하는 문화주체가 훈육되는 과정은 식민지 한국인이 근대적 '개인'으로 구성되어 가는 제도적 맥락을 추적할 수 있게 했다. 식민지 시기 동안 시간이 흐르면서 더욱 강력해진 통치 권력 하에서, 한국의 '취미' 개념은 공통의 취미를 공유하는 '집합적 주체'와 사적 일상, 미시적 존재로 함몰해가는 '개인' 사이에서 줄타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

1. 들어가며

오랫동안 '취미(趣味)¹⁾'는 '노동'이나 '직업' 이외의 영역에서 개인이 즐기거나 재충전할 수 있는 '오락(娛樂)', '여기(餘技)'의 의미로 쓰여 왔고 오늘날에도 그 의미는 유효하다. 하지만 일과 놀이의 경계가 분명치 않게 된 21세기에는 취미가 곧 일이 되는 경우도 있고, 스포츠를 넓히거나 자격증 취득을 위한 봉사활동처럼 자기계발을 위한 투자형 취미도 등장했다.²⁾ 전문가 수준의 지식과 실력을 갖추고 취미생활을 즐기려는 경향이 생겨났고, 과시하려는 취미가 아니라 몰입과 체험을 즐기려는 취미의식이 강해진 것도 사실이다.

현대사회에서 '취미(趣味)'라는 개념은 특정 대상을 지시하거나 다양한 활

동적 용어들과 연결되어 사용된다.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취미의 범주는 축구나 등산과 같은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실천에서, 음악감상이나 다도와 같은 '정신적' 층위까지 포함한다. 쇼핑이나 수집과 같은 '소비 활동'과 서예, 뜨개질 같은 '생산 활동'을 넘나들기도 하며, 헤비타트와 같은 다수의 '봉사활동'이나 '공동의 참여적' 행위에서 부터 셀카찍기나 심지어 혼자 놀기 같은 '고립적이고 은둔적' 행위도 취미의 범주에 든다. 물론 하나의 구체적 취미활동은 그 특성이 여타의 취미와 뚜렷하게 구별되지 않으며, 앞서 거론한 속성들이 중층적으로 얹혀 있는 경우가 많다. 영화취미, 문학취미, 바둑취미 등에서부터 '커피에 남다른 취미가 있다', '여행에 취미가 있다', '가사일에 취미가 있다'는 등의 표현이 일상에서 발화되고, 엽기취미, 전원취미, 이국적 취미 등 언어 용법도 다양하다. 실제로 취미와 조합해서 지시할 수 있는 인간의 정서적 상태나 활동은 무한대라고 할 수 있다. '취미(趣味)'는 또 대상의 특질을 포착하고 즐길 수 있는 '심미적 능력'이나 '관심이 쏠리는 경향'을 의미하는 '취향(趣向)'으로 대체되기도 하고, '기호(嗜好)'나 '흥미(興味)'라는 말과 쉽게 호환된다. 이렇게 개념어로서의 '취미'에 대해 대략적으로 살펴보기만 해도, 내포된 의미층이 간단치 않음을 알 수 있다. 개념과 범주가 무한 확장되고 있는 '취미', 확장되면서 모호해진 취미의 개념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포착해야 할까.

이상의 문제의식 하에 본고는 한국 근대시기에 대중문화의 장에서 '개인'이 존재감과 정체성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기축이 되었던 '취미(趣味)'의 개념과 표상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결론을 미리 당겨 말하자면, 취미 역시 여타 개념어처럼 근대에 새로 만들어진 말인데 개화기에 등장한 '趣味'는 많은 경우 전통적인 미학 용어인 '치(致)', '풍류(風流)', '벽(癖)'의 흔적이 남아 있는 개념이었다. 여기에 개화기의 문명관과 서구 취미론의 영향을 받은 일본의 번역어 '취미(taste)'의 영향을 받으면서 개념이 확장되고 변전되는 역동성을 드러냈다. 그렇다면 근대적 이념과 주체의 경험을 매개하고

1) 논의의 편의를 위해 일단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취미'의 개념을 크게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 (1) 미적 감식안이나 미적 능력. 아름다운 대상을 감상하고 이해하는 힘.
- (2) 감흥을 느끼게 하고 마음을 끌어당기는 맛. 미적 대상이 소유하고 있는 아름다움.
- (3)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餘暇)를 즐기기 위한 오락적 실천 행위들.
- (4) 세속적인 재미나 흥미.

2) 도보여행(국토순례)과 마라톤(하프마라톤 대회에 정기적으로 참가)을 취미로 할 때 취미 주체가 향유할 수 있는 비일상적 활력이나 즐거움과는 별개로, 이런 취미는 인턴십과 입사의 기회를 얻는 데 도움이 되는 항목이라고 한다. 신학기가 되면 각 대학 동아리들이 이 조건을 내걸고 동아리 회원들을 모집하는 장면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분절한 한국 근대의 '취미' 개념을 살피기 위해 우선 언표의 출현부터 살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근대 '취미(趣味)' 개념이 ① '문명'과 '지식'이라는 개화기의 시대적 요구를 받아들이고, ② 서구의 심미적 개념(taste의 번역어)에 영향을 받으며, ③ 개인의 기호에 따른 오락취미(hobby) 등으로 분화되어 가는 과정을, 당대 매체 기사와 소설, 수필 등 풍속사적 자료를 통해 재구할 것이다.

2. 테이스트(taste), 슈미(しゅみ), 취미(趣味)

19세기 후반 이후 일본과 한국의 관계를 전제로 할 때, 한국의 근대 사상과 개념은 일본으로부터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회 문화적 구조 안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 때문에 신조어로 등장한 한국의 '취미' 개념의 연원을 소급하기 위해 한국을 중심에 두고, 일본의 '취미'와 일본 사상의 배후가 되는 서양의 '취미' 개념을 살펴볼 것이며, 한국 근대 취미 개념과 취미 담론의 전사(前史)로서 근대 이전 조선의 취미 개념을 추적해 보고자 한다.

서양에서 취미(taste)는 17세기 후반에 미학상의 용어로 사용되었다. 18세기에 영국의 도덕철학과 독일의 계몽철학을 거치면서 18세기 말에 '취미'를 주제로 한 이론화 작업이 하나의 전환점을 맞았다. 1757년에 『백과전서』 제7권의 '취미(taste)' 항목을 집필한 '볼테르'는 예전부터 내려온 미(美)에 대한 고전적 규범의 절대성과 그것에 근거한 작품의 객관적 재단(裁斷)으로서의 취미를 기술했다. 그러나 같은 항목을 집필한 '몽테스키외'나 '달랑베르'는 취미를 '개개의 대상이 인간에게 제공하는 쾌락의 정도(程度)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일순간에 발견하는' 개인의 주관적인 능력으로 보았다.³⁾ 만일 취미를 "개인이 쾌(快)를 감지하는 능력"이라고 한다면 각자 그들 자신만의 취미가

있다는 말이 된다.⁴⁾ 그런데 그렇게 되면 취미는 판단으로서의 어떤 보편성을 요구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런 난관에 직면한 몽테스키외와 달랑베르가 준비한 탈출구는, 개인에게는 의식되지 않고 직접 드러나지는 않지만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자연본성에 맞는 공통의 소질이 있다는 인식이었다. 결국 개인적 취미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은 인간의 보편성에 기초한 절대적 취미라고 말함으로써, 다시 고전주의적 규범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이후 칸트에 이르러 '취미판단'이라는 확고한 개념으로 자리 잡았다.⁵⁾

칸트에 따르면 미(美)를 판단하는 능력으로서의 취미(taste)는 감각적인 어떤 사물을 대상에 두고 그것의 미적 가치를 쾌(快), 불쾌(不快)의 감정과 관련시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킨다. 칸트에 따르면 어떤 대상의 미추(美醜)를 판별하는 심미적 상태는 오직 주관에 따른다. 하지만 취미판단은 주관적 독단이 되어서는 안 되고 모든 사람이 동의할 만한 보편성에 근거해야 한다.⁶⁾ 즉 '심미적인 공통감각'을 전제로 한 보편타당성을 획득해야 하는 것이다. 인간이면 누구나 선형적으로 '미'를 전유할 수 있는데, 이때 공통감각은 귀족이나 특권층이 아닌 시민계층⁷⁾의 보편적 이해에 근거해 그 타당성을 갖게 되는 감각⁸⁾이다. 시민 개인의 감성에 근거한 '취미판단'은 당시 문화를 주도하던 시민계층의 미학론의 핵심을 이루었고, 미적 자율성을 기반으로 한 고전주의 문학을 꽃피우게 했다.⁹⁾ 이렇게 탄생한 근대 예술 개념 위에서 '좋은 취미'와 '악취미'가 구별되었다. '좋은 취미'는 도시에 거주하는 신혼 부르

4) 취미에 대한 개인적 쾌감과 보편적인 규범 사이의 논리적 난점을 칸트는 '취미의 이율배반'이라고 지적한다.

5) 임마누엘 칸트, 2005, 『판단력 비판』, 김상현 역, 책세상; 토티 페리, 1995, 『미학적 인간』, 방미경 역, 고려원, 28쪽.

6) 임마누엘 칸트, 2005, 『판단력비판』, 이석운 역, 박영사, 57쪽.

7) 17~18세기 서구에서 진보적인 시민계층이 전개시킨 계몽주의 운동 즉 시민계층이 궁정 문화의 '데코럼(예절, decorum)'에 대립해서 그들의 예술 활동을 정당화시켜 주는 미학의 근거로 인간의 주관성에 의한 '취미(Geschmack)'를 내세웠다.

8) 임마누엘 칸트, 앞의 책(주 6), 100~101쪽.

9) 김연순, 1992, 「18세기 독일 계몽주의의 문학사회 고찰」, 『首善論集』 제17집, 138쪽.

3) 西村清和, 1995, 『現代アートの哲學』, 産業圖書, 130쪽.

주아 계급과 엘리트 계급이 소유한 고급문화의 규범이었다. 그들이 생각한 보편적 인간성은 신사숙녀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반면 부르주아 엘리트 계급과 상대되는 평민의 저속한(vulgar) 취미는 '악취미'로 분류되었다. 악취미는 인간성이라는 가치의 근간과 관련된 결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미적인 비난임과 동시에 도덕적이고 계층적인 비난의 말이 되었다.¹⁰⁾ 여기서 '개인=인간성'이란 소수 교양층과 엘리트들의 경우이며, 평민이나 대중은 인간 이하 내지는 인간 이전의 존재였다. 평민이나 대중을 '좋은 취미'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 다시 말해 본래 인간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일이 미적 근대의 프로젝트이자 미적 휴머니즘의 기본 동기였다.¹¹⁾

여기서 잠깐 논의의 방향을 돌려 일본의 근대적 '취미' 개념은 어떤 맥락 하에서 등장하게 되었는지 살펴보자. 일본에서 '취미(趣味)'라는 용어가 빈번하게 쓰이기 시작한 것은 메이지 40년대(1900년대)이다. 메이지 37년(1904)에 출간된 사전에는 아직 '취미' 항목이 수록되지 않았고, 전통적인 개념인 '오모무키(趣, おもむき)¹²⁾만 실려 있었다. 일본에서 '취미(趣味)'의 언어적 용법이 마련되고 사전적 개념으로 수록된 것은 다이쇼 10년(1921)이 되어서이다.¹³⁾ 메이지 말에 등장한 일본의 '취미'가 서구의 번역어였음을 분명히 밝혀 놓은

10) 西村清和, 앞의 책, 129쪽.

11) 이후 현대의 서구 유럽사회를 분석한 부르디외(Pierre Bourdieu)는 계급과 문화실천의 관계망을 연구하면서 앞선 칸트 미학론의 중요 전제인 취미(taste)의 일치성을 비판했다. 현대 대중사회에서 취미는 미적 대상에 대한 순수한 판단이 아니라 역사적인 산물이고, 학력자본과 경제자본, 문화자본의 축적과 상속을 통해 재생산되는 계급의 지표라고 본다. 피에르 부르디외, 1996, 『구별짓기: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상)』, 최종철 역, 새물결.

12) 사전적 의미를 보면 ① 오모무키(趣)가 있는 것 ② 마음, 의미, 취의(趣意), 의취(意趣) ③ 사물에 있는 좋은 상태, 맛, 아취(雅趣)였다. 『おもむき(趣)』, 『言海』, 明治37年(初版). 일본의 전통적 미의식을 드러내는 '오모무키(趣)'의 의미는 조선시대 우리의 '致', '雅致(雅趣)와 유사하다. '취(趣)'가 한자어 문화권인 중국과 일본, 조선에서 공유한 미적 개념의 하나였음을 알 수 있다.

13) 神野由紀, 2000, 『趣味の誕生』, 勤草書房, 6쪽. 이하 일본의 근대 '취미'에 대한 서술은 진노 유키(神野由紀)의 저작 『趣味の誕生』에 빚지고 있다.

자료가 있어 주목을 요한다. 일본 근대문학사에서 선구자로 꼽히는 쓰보우치 쇼요(坪内逍遙)는 자신이 발간한 잡지『趣味』의 권두언격인 「趣味」에서, 1900년대 초반 일본에서 사용된 '취미'라는 용어가 칼라일이 말하는 'taste'의 번역어라고 언급하였다.¹⁴⁾ 쓰보우치 쇼요에 의하면, 칼라일은 "진정으로 높고 큰 것을 감지하는 것", "어디서 어떤 형태로 보이는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것, 질서 있는 것, 선한 것을 감지하고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의 작용"을 'taste'라고 했다. 이것을 받아들여 당시 일본에서는 'taste'를 '취미'나 '취미성(趣味性)'으로 번역했고, 간혹 '기호(嗜好)', '풍상(風尚)', '감상력', '완상성(翫賞性)'이라고 번역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서구어 taste의 번역어로 사용되었던 일본어 '취미'는 메이지 40년대에 하나의 '유행어'가 된다.¹⁵⁾ 메이지 40년대에 일반인들의 대화 속에서 유행처럼 사용되던 '취미' 개념의 사회적 파장력을 집약적으로 보여 주는 한 사례가 『와세다문학(早稻田文學)』의 자매지로 창간된 잡지 『취미(趣味, しゅみ)』였다. 1906년 6월에 창간되어 1914년 1월에 중단된 『취미』는 메이지 말기 '문화개량운동'의 중심에 있었다. 당시 러일전쟁 직후 일본에서는 메이지의 '문화개량'이 물질적인 유신을 이루어 냈지만 국민 전체의 정신구조까지 변화시키지는 못했다는 반성이 일고 있었다. 그리고 사회의 모든 면에 걸쳐 새로운 '문화'를 만들려는 움직임, '정신적 유신'을 향한 운동들이 생겨났다.¹⁶⁾ 이 정신적 유신을 민간 차원에서 실행했던 사람이 쓰보우치 쇼요였다. 쇼요의 문화개량운동의 목표는 " '고급'문화의 보급과 '저급'문화의 향상"이었는데

14) 坪内逍遙, 1906, 「趣味」, 『趣味』第1卷 第1號, 彩雲閣, 明治39年 6月, 1쪽.

15) 西本翠蔭, 1906, 「趣味教育」, 『趣味』第1卷 第3號, 明治39年 8月, 易風社, 24쪽. "얼마 전까지도 취미라는 단어가 그다지 발견되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신문잡지 등에서 매우 많이 사용되는 것 같다. 지금까지는 취미라 하면 그저 일부 호사가가 입에 담은 말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음악취미라든가 만담취미라든가, 이 뜻은 취미가 있다든가 하는 식으로 여기저기서 착 들러붙게 되었다. 생각해 보면 모든 사람들이 취미라는 말의 가치를 알고 이를 극구 찬양한 결과이다."

16) 南博, 1966, 社會心理研究所編, 『大正文化』, 勤草書房, 昭和40年, 48쪽.

또 메이지 말기 일본의 취미담론은 재한(在韓) 일본인을 대상으로 조선에서 발행한 신문과 잡지에도 지속적으로 게재되면서 '취미' 개념을 유포했다. 1908년부터 경성에서 발간된 일본어 잡지 『조선(朝鮮)』을 비롯하여 그 후신인 『조선급만주(朝鮮及滿洲)』 등에서 다이쇼 문화주의를 배경으로 한 일본 근대어 '취미(趣味)'를 발견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이런 매체들을 통해 조선은 일본어 '취미'의 개념과 사상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문명의 대리자인 제국 일본은 식민지 조선의 '무취미(無趣味)'를 교정하려는 입장에서 근대적 취미론을 조선에 설파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 '취미'는 이렇게 일본을 통해 들어온 박래품과도 같은 번역어에서 기원하는 것일까. 한국 근대에 '취미'라는 용어가 출현하고 하나의 개념으로 정착하는 데는 전통의 정신사적·문화사적 맥락이 존재했을 것이라는 가설 하에 그 흐름을 추적하고자 『조선왕조실록』²²⁾의 원문을 검색했다. 그 결과 조선시대에 '취미(趣味)'는 오늘날과 같이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말이 아니었음을 확인했다. 조선시대에 '취미'가 사용되는 용례와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조선왕조실록』의 원문을 검색하면 6개 정도의 예가 발견된다. 여기서 '臭味'는 '趣味'보다 훨씬 많은 50회 이상의 용례를 찾을 수 있다. 현대어로 번역된 『조선왕조실록』 국역판에서 검색된 '취미(趣味)'는

재료를 채집 ㅎ엿소으며 본호에 대한 부록은 신년 일월에 적당 ㅎ趣味를 助長도 하고 (중략)"

④ 「발간의 사, 『태서문예신보』 제1호, 1918년 9월, 1쪽.

“본보는 태서의 유명한 소설, 시도, 가곡, 음악, 미술, 각본 등 일반 문예에 관한 기사를 문학대가의 붓으로 직접 본문으로부터 충실하게 번역하여 발행할 목적이온자 다년 경영 ㅎ든 바이 오늘에 데일호 발간을 보게 되었습니다. 편집상 불충분한 점이 만사오나 강호 제위의 ㅎ독 ㅎ여 주심을 따라 일반 기자들은 붓을 더욱히 가다듬어 **취미와 실익**을 도모 ㅎ기에 일층 로력을 다 ㅎ겠습니다.”

22) <http://sillok.history.go.kr>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조선왕조실록』을 통해 '취미' 개념의 활용양상을 확인한 결과가 조선시대의 '취미'를 완전하게 보여 주는 것은 아니다. 다만 국가의 방대한 공식기록인 왕조실록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텍스트가 언어사용의 대표성을 갖는다는 판단은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원문에서는 '臭味', '致', '趣', '味', '嗜'로 표기된 단어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²³⁾ 조선시대에 趣味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고, 臭味가 오히려 자주 사용되는 말이었던 셈이다. 그러던 것이 개화기를 거치면서 '臭味'는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고 '趣味'가 전면에 등장하였다. 이것은 '趣味'라는 개념의 등장과 의미화가 근대 이후에 진행된 것을 보여 주는 언어적 현상이라고 하겠다. '趣味'가 사용된 실록 원문의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기호(嗜好)', '의향', '분위기', '가치관' 등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기호'나 '좋아하는 것'을 뜻하는 용례의 경우는 근대어 '취미'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 것이지만, 사람이 가진 '가치관'이나 '의향과 같이 광의의 정신적인 부분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쓰이기도 했다. 한편 『조선왕조실록』에서 50회 이상 용례가 발견되는 '臭味'는 오늘날의 '趣味' 개념처럼 대부분 기호나 즐기는 것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조선왕조실록』외에 18세기 문헌에서 찾은 '趣味'는 '수석취미(水石趣味)'²⁴⁾나 '유객취미(遊客趣味)'²⁵⁾ 등으로도 쓰였는데, 자연에서 즐기는 '풍류'를 의미했다.

근대 '취미(趣味)'와 비슷한 전근대(前近代)의 미학적(美學的) 개념어로 '풍류(風流)'를 꼽을 수 있다. '풍류'는 노장과 도가 사상을 기본으로 하는 동양 미학의 기초 개념으로 한중일 미의식의 근원에 자리한다.²⁶⁾ '풍류' 역시 지금의 '취미'처럼 하나로 수렴되지 않는 다양한 의미망을 가진 용어였다. 종교성, 예술성, 유희성을 모두 포괄하는 풍류 개념에서 도사상이나 형이상학

23) '취(趣)와 '미(味)'는 개별적으로 사용되는 동양의 미학 용어였다. 장파, 1999, 『동양과 서양 그리고 미학』, 유중하 외 역, 푸른숲.

24) 「稀年錄-中」, 『樊巖先生集卷之十八』.

25) 「自靑川入華陽」, 『性潭先生集卷之一』.

26) 한국과 중국, 일본에서 정의하는 '풍류'의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 한국(우리말큰사전): '속된 일을 떠나 풍치있고 멋스럽게 노는 일',

· 중국(중문대사전): 風化流行(풍속이 교화되어 아래로 흐르는 것),

· 일본(일본국어대사전 『言泉』, 小學館): 기품이 있고 우아한 모습, 세속으로부터 떠나 취미(趣味)있는 곳에서 노니는 것.

신은경, 2003, 『풍류: 동아시아 미학의 근원』, 보고서, 21쪽에서 재인용.

적 요소는 시간이 흐르면서 약화되었고, 예술이나 놀이적 개념이 부각되었다. 한중일 삼국 모두에서 풍류는 “예술적으로 혹은 미적으로 노는 것”으로 규정된다. 어느 나라에서건 풍류는 애초에 부(富)와 일정 정도의 신분, 지위를 갖춘 계층의 정신적 여유를 바탕으로 한 ‘귀족취미’에서 비롯되었다. 놀이라고 하는 것이 일상의 실용적 목적성과는 거리가 있음을 감안할 때, 일상적 삶에 구애될 필요가 없는 상류층이야말로 미적인 것을 추구하고 향유할 기반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²⁷⁾

그렇다면 전근대에 특정 계층이 소유한 미적 정서와 활동으로서의 ‘풍류’가, 계급이 철폐된 근대사회가 되면서 보편적이고 공중(公衆)적인 근대적 ‘취미’의 개념으로 이전하게 된 것은 아닐까 추론해 볼 수도 있겠다. 그러나 상류층의 풍류문화가 곧바로 근대적 취미문화로 대체된 것은 아니다. 일단 조선 후기 문화적 지반 안에서 근대적 취미를 선취(先取)한 새로운 흐름을 18세기 ‘신지식인층’의 문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풍류’는 오랫동안 양반 사대부 계층의 문화향유 정신이자 행위였다. 그러던 것이 조선 후기가 되던 한양에 거주하는 중인이나 경아전층까지 그 향유층이 확산되었다. 중인층의 풍류활동은 문화적 상징행위를 통해 정치·사회적 주변성을 극복하고 상층문화의 권위에 저항하는 것이었으나 한편으로는 상류층의 미의식과 문화를 모방하려는 욕구의 표출이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18세기 이후 서울을 중심으로 한 중인층 ‘풍류 공간’의 출현,²⁸⁾ ‘여항(閭巷)문학’의 등장, 경화세족(京華世族)의 벽(癖)과 치(痴) 추구 등, “18세기 지식인의 새로운 지적 경향과 변화된 문화 환경”²⁹⁾이 그 배경에 놓여 있었다. 18세기에는 사회 내부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외국과의 활발한 문화 교류가 시행되었고 지배담론이었던 성리학의 권

위가 급격히 쇠퇴했으며 생동하는 도시 문화가 빠른 속도로 보급되었다.³⁰⁾ 한편 중국과 일본을 통해 각종 서적과 사치성 소비재들이 유입되었다. 사대부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벽(癖)’ 예찬론이 출현하였는데, ‘무언가에 미친다’는 뜻의 ‘벽(癖)’은 18세기 지식인의 새로운 경향을 보여 준다. 경화세족과 연암일파, 경아전층 지식인들이 펼쳤던 ‘벽(癖)’과 ‘치(癡)’ 예찬론은 ‘미적(美的) 대상에 몰입하는 순수한 정신’, ‘동기의 무목적성’을 고평(高評)한다는 점에서 근대적 취미론을 선취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새로운 지식인집단은 실사구시(實事求是)의 합리성과 벽(癖)의 열정을 옹호했다. ‘미(美)’에 대한 자유로운 감수성과 벽(癖) 예찬은 18세기 후반부터 고동서화취미, 독서취미, 장서수집취미, 원예취미 등의 취미를 유행시켰다.

예술품을 감상하고 소장하는 행위는 오늘날에도 대표적인 취미 활동 중의 하나로 꼽힌다. 게다가 경화세족의 ‘고동서화취미’가 개인적 향유에서 멈추지 않고 문예 취향이 비슷한 교류집단 안에서 유행하는 공통 취미이자 문화 권력이 되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근대적인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근대의 ‘취미’와 다른 점은, 취미 세력이 중인층까지 포괄하면서 신분을 막론한 보편적 문화취미를 향유했다고 해도 절대 극복할 수 없는 계층적 한계가 전제된 문화집단이었다는 점이다. 중인층 신지식인들은 지식과 감수성에 있어 양반귀족층과 소통 가능한 수준을 담지한 자들이었다. 박제가는 “새로운 세계를 개척하고 전문적 기예를 익히기 위해서는 벽(癖)적인 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고, “(사람이) 벽(癖)이 없으면 버림받은 사람(人無癖焉 棄人也已)”³¹⁾이라고까지 표현했다. 당시 서울 지식인들은 취미를 공유하지 못하면 당연히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취미를 공유하는 그룹들은 ‘문화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은 물론, ‘문화적 구별짓기’를 행함으로써 문화 권력이 되기도 했던 것이다.

27) 신은경, 앞의 책, 66~67쪽.

28) 송지원, 1994, 「조선후기 중인층 음악의 사회사적 연구」, 『민족음악의 이해』, 민족음악연구회.

29) 정민, 2007, 「18세기 조선 지식인의 자의식 변모와 그 방향(方向)성」, 『조선 지식인의 발전』, 휴머니스트, 111쪽.

30) 정민, 앞의 책, 85~109쪽.

31) 朴齊家, 「百花譜序」, 『眞齋客文集』 1권. 안순태, 2004, 「남공철의 문예취향과 한시」, 『한국한시연구』 12호, 한국한시학회, 399쪽에서 재인용.

3. “취미”, 제국과 식민의 역학

한국에서 '취미(趣味)'라는 개념어가 출현한 것은 1900년을 전후한 때였다. 이 시기는 대한제국의 근대 국민국가 담론이 형성되던 때이기도 했다. 전통적으로 유교 지식인과 상류층이 소유했던 '아치(雅致)'나 '치(致) 혹은 '풍류(風流)'와 같은 미학 용어가 있었지만, 근대 계몽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이들 언어는 새로운 존재 가능성을 모색해야만 했다. 조선시대까지 예술적인 趣(취미)가 제한된 계층만 향유할 수 있는 고급한 취향 문화였다면, 근대 이후 그것들은 원칙적으로 모든 계층에게 개방되면서 대중적 문화 양식으로 재구성되었다. 신분제가 무너지고 근대적인 정치·경제 구조로 편입하면서, 문화의 소비양식 또한 달라진 것이다. 서구에서도 '취미(taste)'라는 근대적 문화실천의 개념과 제도가 등장하는 시기는, 근대 국민국가가 성립되는 시기와 맞물린다.

1900년대에 등장한 낯선 기표 '취미(趣味)'의 구체적인 용법과 활용 양상은 개화기에 발간된 학회지와 신문매체, 잡지, 각종 문서 등을 통해 분석했다.³²⁾ 가장 이른 시기에 '취미' 용법이 발견된 것은 1899년 7월 7일자 『황성신문』 제153호³³⁾ 논설 안에서이다. 이 논설은 어부로서 강호에 살았던 당나라 은사 장지화와 스스로를 오류선생이라고 칭했던 도연명을 거론하며, '資

32) 1900년대 전후의 근대 매체 중에서 신문으로는 『황성신문』, 『독립신문』, 『대한매일신보』를, 학회지로는 『대동학회월보』, 『대조선독립협회보』, 『대한자강회월보』, 『대한협회회보』, 『서우』, 『서북학회월보』, 『기호학회월보』, 『태극학회보』, 『호남학회보』 등을 텍스트로 삼아 '취미'라는 용어가 사용된 용례를 찾아보았다. 그리고 1908년에 발간된 최초의 근대문학잡지인 『소년』을 포함시킴으로써, 계몽기 사회담론과 문학담론에서 사용된 '취미'를 함께 살필 수 있었다. 기사를 통해 '취미' 개념이 내포한 의미와 그 의미변화의 맥락을 해석하고자 했고 의미의 여러 층위를 잠정적으로 분류해 보았다.

33) “(상략) 世人이 張志和를 謂_ㄷ 桃花流水에 魚를 釣_ㅎ이 趣味를 取_ㅎ(*필자 강조)이오 生利를 取_ㅎ은 아니라 淸_ㄷ디 或 日 人이 衣食이 無_ㄴ면 趣味도 不知_ㄴ니 張志和는 江湖의 隱者라 衣食이 自足_ㄴ기 不能_ㄴ야 一日의 釣利가 一日의 生涯를 求_ㄴ앗기에 靑笠綠衣로 斜風細雨에 不須歸_ㄴ앗느니라. (하략)”. 「論 』, 『皇城新聞』 1899년 7월 7일자.

業(근대적 실업)할 것과 '생애를 切求하는 자(살아나갈 방도를 구하려는 자)' 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글에 따르면, '취미'는 '職分'이나 '살아갈 방도를 구하는 일', '생계를 꾸리는 일'과는 대척점에 놓여 있다. 그러나 취미와 생애(=생계)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이유는 생계가 해결되지 않으면 취미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취미'는 전통적인 '풍류'에 가까운 의미로 쓰이고 있다. 그런데 기사의 논조는 장지화와 도연명 같은 인물이 고민하고 행했던 것들을 전혀 실행(實行)하지 않은 채 명에만을 '헛되이 흠모(虛慕)하고 '세속적으로 숭상(俗尙)하는 개화기의 유희과 봉건관료를 비난하는 것으로, 풍류정신의 예찬과는 거리가 멀다. '實行', '資業'을 강조하면서 실업중시, 부국강병, 식산흥업을 외치던 개화기 논설과 맥을 같이하고 있는 것이다.

이후 1900년대 중반까지 근대 매체에서 '趣味' 기표를 찾기가 어렵다. 이는 '취미' 용법이 단절된 것이라기보다 1899년 『독립신문』이 폐간된 이후 1905년까지 각종 학회지의 발행이 잠복기에 들어갔다가 1906년 이후 다시 나타나기 시작한 매체사적 현상과 관계가 깊다.³⁴⁾ 1906년 이후 1910년까지 매체에서 사용된 '취미'라는 기표는 전통적 '풍류' 정신과 개화기의 주도적 이념이었던 '계몽성'을 겸유(兼有)하는 다의적 용법으로 쓰이고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취미'는 문명, 교육, 실업, 구국 담론과 결합하면서 근대적 가치를 보증받았다. 개화기의 '취미'는 근대 정신의 일반적 상태나 습속과 같은 총체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취미'가 계몽과 교화의 실현을 위한 일종의 개념적 장치로 쓰였던 셈이다.

개화기에 간헐적으로 등장하면서 그 용례를 넓혀 가고 있던 '취미'는 1910년

34) 1894년 이후부터 1899년에 이르기까지 갑오농민전쟁, 청일전쟁, 갑오개혁 등 역사적 사건들이 발생한 역동적 시기에 여러 근대적 개념들이 활발하게 출현하고 논의되었다. 그러다가 1906년까지 계몽담론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버린 것은 대한민국 국제(大韓國國制)가 제정되고 광무정권이 유지되는 시기라는 역사적 배경에서 기인한다. 박주원, 2004, 「근대적 '개인', '사회' 개념의 형성과 변화」, 『역사비평』 67호, 역사문제연구소, 220~222쪽.

이후 본격적인 문예담론과 취미담론 안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지기 시작했다. 1900년대 각종 매체의 '취미'가 근대적 지식과 앎, 문명을 향한 계몽의 차원에서 강조되는 개념어였다면, 1910년대에 '취미'는 근대적 '신문화'가 가진 가치로 내세워지면서 개인과 일상을 경유하는 비교적 선명한 개념으로 발화되었다. 1910년대는 『소년』(1908년 11월 창간~1911년 5월 폐간), 『청춘』(1914년 10월 창간~1918년 9월 폐간), 『학지광』(1914년 4월 창간~1930년 4월 폐간. 여기서는 잡지의 성격이 변하기 이전인 1919년 8월, 제18호까지만 살폈다)과 『신문계』(1913년 4월 창간~1917년 3월 폐간)를 중심으로 해서 '취미'의 변용과 전유의 양상을 살폈다.

『청춘』 2호에 실린 소성(小星) 현상윤의 동경유학기³⁵⁾에는 막연한 지식적 개념이 아니라 '취미'의 구체적인 상(像)을 떠올리게 하는 서술이 있어 주목을 요한다. 식민지 유학생인 필자가 일본 내지에서 목격한 제국인의 삶, 즉 '취미있는 삶'을 사는 일본인들에게는 활기와 약동이 있었다. 그가 보기에 취미있는 삶을 가능케 하는 동력은 풍부한 지식과 사상이었다. 1910년 조선에서 '활사회(活社會)와 '활력(活力)'의 강조가 있었는데, 현상윤은 '취미'를 생명력 있는 삶, 근대인의 지적 자극과 활력을 제공해 주는 매개로 평가했다. 1910년대 취미담론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高尚한 快樂」³⁶⁾은 일종의 취미교육담론이다. 인간의 감정과 삶의 쾌락에 대한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고상한 쾌락으로서의 '취미'가 설정되었다. 지적(知的)인 능력을 기반으로 한 고상한 쾌락은 학문과 직업의 영역에서도 추구할 수 있는 근대적 가치로 꼽혔다. 고상한 쾌락은 '취미'로 수렴되고, 취미는 직업으로 이어진다는 논지를 담고 있는 이 글은 근대적 오락과 여가에 대한 소개까지 하고 있다.

1910년대 잡지로서는 최대 발간 횟수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친일계 잡지 『신문계』의 배경에는 일제와 총독부의 비호가 있었다. "일제는 무단 통치의

이면으로 한국인에 대한 심리적 복속정책을 병행하지 않을 수 없었다. 더욱 효율적인 식민지 지배를 위해 한국인의 정신개조 사업을 기도"³⁷⁾했는데, 『신문계』 발간 목적은 식민정책을 보완하는 것이었다. 『신문계』에서 '취미'는 한일합방 이후 식민지적 사회 개편을 통해 새로운 주체 세력으로 설정된 학생과 청년층의 '자질'로 제시되었다. 특히 일시적인 재미나 흥미가 아니라, 반복적이고 영속적인 쾌(快)가 '취미'를 보장한다는 학술적 취미론은 서구의 'taste' 사상과 가까웠다. 『신문계』의 필진 대부분은 동경 유학생 출신 현직 교사였다. 교사 집단이 가진 일본 문명에 대한 추종과 이것이 잡지의 주 독자층인 학생들에게 끼친 영향 등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신문계』에 실린 취미 관련 분야는 사회에 전방위적으로 걸쳐 있다. 다만 식민지적 현실을 환기시킬 수 있는 사회진화론에 입각한 문명담론이나 민족주의적 기사는 철저히 배제되었다. 근대 과학 기술의 성과를 소개하거나 법학, 경제학, 무역학 등 보편적인 학문 영역에 비중을 둔 것은 식민지화의 필연성을 간접적으로 선전하는 것이기도 했다. 취미 함양을 위해 소개된 법 제도, 교육 제도, 산업 제도 관련 기사들을 통해 해당분야 지식들을 보급함으로써 식민지의 각종 제도를 피식민자들에게 내면화시키는 효과를 기대했던 것 같다. 『신문계』적 취미 용법을 잘 보여 주는 기사로 1913년 5월호에 실린 「주장(主張) 학술연구의 취미」³⁸⁾를 꼽을 수 있다. 연구하지 않으면 학술을 할 수 없고 취미가 없으면 인생이 존재하기 어렵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서술된 이 글에서 '학술'과 '취미'는 인생에서 등가적인 가치를 갖고 있다. 한편 『신문계』의 공식적인 입장을 피력하는 '권두언'이나 '편집후기'에 등장하는 '취미'는 발행인과 편집진의 공동된 '취미'용법이라고 말할 수 있을 터인데, 잡지는 '중등 이하의 간이한' 학문을 통해 그들에게 '실익'과 '취미'를 제공하고자 함을 피력했다.

'취미'가 일제의 식민지 지배기술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은 경성에서 발간

35) 小星, 1914, 「東京 學生生活」, 『청춘』 제2호, 110~117쪽.

36) 「高尚한 快樂」(1915), 『청춘』 제6호, 50~63쪽.

37) 한기형, 1996, 「무단통치기 문화정책의 성격—잡지 『신문계』를 통한 사례분석」, 『민족문화사연구』 9호, 225쪽.

38) 「주장(主張) 학술연구의 취미」(1913), 『新文界』 제1권 제2호, 2~4쪽.

된 일본어 잡지 『조선』, 『조선급만주』를 통해 재구할 수 있다. 두 매체는 합병 이후 일본 제국이 식민지 조선을 “취미화(趣味化)”하려는 정책을 펴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³⁹⁾ 일본과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을 주요 독자⁴⁰⁾로 상정하고 있는 잡지의 특성상, 『조선』과 『조선급만주』는 식민지 조선으로 본국인들을 이주시켜 식민정책을 실시하고자 한 제국의 통치전략이 어떤 식으로 기획되고 전개되었는지를 좀 더 직접적으로 보여 준다. 특히 이들 매체는 1910년 이후로는 내지연장주의(内地延長主義)의 입장에서 경성을 제국일본의 지방으로 상정하고, 일본 내의 제도와 행정을 경성에 바로 전승하는 역할을 했다. 풍속과 일상, 행정과 위생, 경찰법 등 제도와 관습을 망라한 식민지 통치의 다양한 전략 안에는 ‘취미(趣味)’의 전파와 교육도 포함되었다. 이때의 ‘취미’는 일본 내에서 메이지 말기부터 대두한 취미교육의 당위성과 잡지 『취미(趣味)』의 계몽운동, 다이쇼 문화주의라는 배경을 가진 것이었다. 일본에서 ‘새로운 생활 양식의 창출’을 통한 ‘취미’의 계몽은 일상적인 의식주 안에서도 시도되었다. 이러한 일본의 ‘취미(론)’가 조선에 끼친 영향관계와 식민지배자의 구체적인 발언이 이들 매체에 지속적으로 게재되었다.⁴¹⁾ 1910년대 경성을 대상화한 일본인의 취미담론은 모두, 조선의 살풍경과 무취미에

39) 경성(京城)에 거주하던 일본인 旭邦(샤코오 순조)은 1908년부터 경성에서 일본어 잡지 『조선(朝鮮)』을 발행했다. 그리고 1911년에는 『조선』의 후신(後身)으로 역시 일본어잡지인 『조선급만주(朝鮮及滿洲)』를 경성에서 발행했다. 『조선급만주』는 1911년부터 1941년까지 무려 30년간 지속적으로 발간되면서, 제국주의 국가 일본의 대륙팽창정책을 민간에서 지지했던 잡지였다. 초기에는 일본인의 조선이주를 장려하고 이주관련 정보를 제공했으며, 총독부의 행정에 대한 비판과 건의, 재경(在京) 일본인 사회의 생활상 보도와 비판, 경성인상기(京城印象記)와 여행기 등의 기사를 주로 실었다. 『조선급만주』는 조선에서만 1911년 당시 6천 부가 발행된 영향력 있는 매체였다.

40) 이들뿐만 아니라 일본어 해독 능력이 있는 조선인도 독자층에 포함되었을 것이다. 필자들은 대부분 일본과 경성에 거주하는 일본인 관료와 명사들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선의 각 분야 인사들도 필자에 포함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급만주』에 실린 이기세, 서항석, 안석주, 김동인 등의 글을 찾아볼 수 있다.

41) 1920년대까지 『조선』과 『조선급만주』에 실린 취미론, 조선의 취미 관련 기사 수십 편에 달한다.

대한 비판, 그리고 “도서관, 음악당, 극장, 오락장”과 같은 “정신상의 취미오락기관”,⁴²⁾ “공공적 취미오락기관”,⁴³⁾ “공공취미(公共趣味)”⁴⁴⁾의 설비에 대한 주장으로 수렴된다. 일본은 조선을 근대화시키고 문명화한다는 명목 하에 조선의 제분야를 법제화하고, 조선인들에게 규율을 내면화시켰다. 공원, 도서관, 공회당, 극장, 유락장(遊樂場)을 만들었고, 위생취체법을 만들어 공동변소와 하수도를 개선했다. 조선을 미화(美化)하고 경성에 각종 공공적(公共的) 취미오락기관을 설비하고자 했던 것은, 재경(在京) 일본인을 위한 문화 행정이면서 제국의 지방으로 “경성을 취미화하려는[京城を趣味化せざる(をえない)]”⁴⁵⁾ 제국의 전략이었다.

이상의 취미(화)담론에서 주지해야 할 것은, 개화기부터 1910년대 초반에 등장한 ‘취미’ 담론과 ‘조선의 취미화’라는 통치전략 안에서 ‘취미’가 개인의 사사화(私事化)된 행위와 정신이 아닌 ‘공공(公共)’ 취미였다는 것이다. 그 대상이 재한(在韓) 일본인이었을 때는 바람직한 조선 이주와 정착, 건전한 풍기(風氣) 향상을 돕기 위한 일상적인 차원에서의 취미오락보급이 강조되었다. 그리고 대상이 조선(인)일 때는 미개와 야만의 상태로 인식된 식민지 조선을 문명화시키고 조선인의 인심(人心)을 선화(善化)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즉, 국가 기구의 “통치 전략”으로서의 취미보급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취미는 공공오락기관의 설치와 이용을 통해 고취시킬 수 있다고 주장되었다. 때문에 이 시기의 ‘취미’는 아직 일개인의 개성을 강조하거나 사적 주체의 내밀한 행위로 의미화되지는 못했다. ‘취미’는 ‘공공적(公共的)’, ‘사회적(社會的)’⁴⁶⁾이라는 한정어를 달고 있는 가치체계였다.

42) 旭邦生, 1910, 「主張: 在韓邦人と趣味」, 『朝鮮』 제23호, 6쪽.

43) 「趣味と娛樂機關」(1910), 『朝鮮』 제24호, 43쪽.

44) 旭邦生, 1912, 「趣味化の設備」, 『朝鮮』 제49호, 7쪽.

45) 「如何にせば趣味化し得るか」(1912), 『朝鮮』 제49호, 45~58쪽.

46) 「宮内府動物園の公開」(1909), 『朝鮮』 제13호, 8쪽; 「大公園設置の議」(1910), 『朝鮮』 제24호, 7쪽; 「趣味と娛樂機關」(1910), 『朝鮮』 제24호 44쪽.

그런데 1915년경이 되면 경성의 '무취미'와 '살풍경'에 대한 기존 비판이 무색할 만큼 사회의 한편에서는 이미 다양한 취미(趣味)들이 등장했고 조장되고 있었다. 이 시기에 7일제 서양력에 의한 일주일 주기의 시간 개념과, 주말은 공휴일이라는 관념, 공휴일에는 여가나 유희를 즐긴다는 노동-휴식의 개념이 정착되고 있었다.⁴⁷⁾ 주일 개념은 특히 취미활동과 여가라는 라이프스타일이 현실에서 작동하는 데 중요한 시간(분배) 개념을 형성했다. 이 시기에 확산된 다양한 관람과 구경의 문화는 민중들이 취미와 오락을 구체적으로 실감할 수 있게 했다. 조선 사회는 1915년 조선물산공진회를 기폭제 삼아 민중을 박람회와 박물관의 관람객으로, 관앵회(觀櫻會)와 야시(夜市)⁴⁸⁾의 구경꾼으로, 동물원과 극장의 관객으로 불러내며 '취미'와 '유희'를 즐기라고 권유했다. 식민지 조선사회는 제국의 취미를 훈련시키고 교육했으며, 취미를 소유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을 구별하는 담론을 생산했다. 신문과 잡지에 실린 당대 명망가와 지도층에 대한 기사에는 반드시 그 사람의 취미가 소개되었고, 결혼과 연애의 조건 중에 하나로 '취미가 풍부한 자', '취미가 같은 사람'이 선호되었다. 당대인들이 의식적·무의식적 영향관계 안에서 취미의 주체로 형성된 데는 근대 자본주의의 대중문화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 전략이 결합되었다. 한일합방과 3·1운동의 실패라는 역사적 사건을 통해 근대 국민국가 형성이라는 근대적 기획에 실패한 한국인은, '국가' 안에서 '개인'으로 자기-정립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즉 1910년대 이후 식민지 조선인은 국민(國民)이 아닌 제국의 신민(臣民)인 한에서 '개인'으로 주체화될 수 있었다. 일제는 조선인들을 '文明社會의 一分子'라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이름으로 호명하면서, 조선인에게 제국 신민에 합당한 문명인이 될 것을 요구했다. 조선인들을 정치적인 장에서 배제하고, 문화의 장(場)에서 주체로 호출하며 자본주의적 대중문화의 소비자

47) 권보드래, 2008, 「1910년대의 새로운 주체와 문화: 『매일신보』가 만든, 『매일신보』에 나타난 대중, 『민족문화사연구』 36호, 민족문화사연구소.

48) 「관중오만—종로야시의 기시식, 『매일신보』 1916년 7월 23일자.

가 되게 했다. 물론 문화가 작동하는 방식이 지배권력의 통치 전략과 계획대로만 진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제국은 조선을 '취미화(趣味化)'하고 식민지인들을 '취미의 주체'로 허명(虛名)했다.

1910년대 취미 담론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취미' 개념의 분화와 획정이 가치중립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취미의 제도화가 식민지 근대의 권력 작동과 직결되는 문제였다는 점이다.⁴⁹⁾ 이것은 아마도 '취미'의 특성상 개인의 신체와 영혼을 섬세하게 재단하는 규율권력⁵⁰⁾이 될 소지가 많으며, 미시적인 차원에서 개별적 주체를 생산해 낼 수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4. 근대적 인간형과 취미라는 척도: 대중문화와 근대 교육이 견인한 '취미'

1920년대가 되면 '취미'는 개화기 이래 1910년대까지 잔존했던 '문명', '교양', '정신적 개조'라는 시대적 사명을 탈각했다. 일본에서 풍미하던 개인주의가 소개되고, 자본주의적 생산관계 하에서 개별적인 경제활동이 강화되면서 개인의 자율적 영역이 확대되어 간 상황 등이 취미 개념의 확장에 기여했다. 물론 식민지적 현실에서 공적 영역의 (조선인의) 자유는 봉쇄되었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의 개인주의가 발전하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당시의 물산장려운동이나 산업진흥의 분위기는 부르주아적 경제활동을 적극 권장하면

49)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경성의 도시화 계획, 극장의 풍속개량담론, 여학생의 유행가 시비, 조선 고궁의 유원지화 사업 등이 관련되어 있으며, 1910년대 중반부터 193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이슈화되었다.

50) 푸코에 의하면 근대 사회의 권력은 교정기제와 규율기술을 통해 행사되므로, 근대 권력은 점차 법률체계로부터 규범체계로, 처벌보다는 교정을 목적으로, 사법기관에서 의학 및 복지행정기구로 그 주요 영역이 변화, 확대된다. 근대권력의 목적은 특정한 유형의 강제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존재인 인간에게 자제력을 육성시키는 방법으로 사회규범을 내재화시키는 것이다. 미셸 푸코, 1994, 『감시와 처벌, 오생근 역, 나남출판.

서 개인의 해방과 권리를 장려했다. 본격화된 조선의 자본주의 시장에서 문화상품이 된 '취미'는 오늘날과 같이 소비와 구체적 실천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오락'과 '여가'의 의미로 수렴되었다. 근대의 '취미(趣味)' 개념은 '대중 문화'의 대두와 결부되어 전파되었고 '제도'로 자리 잡았다.

총독부의 도시 설계와 통치 정책, 근대적 시각문화의 등장과 도시화의 양상 속에서 '구경하기'는 근대적 행위로 사회화되었다. 관람이라는 행위는 사람들로 하여금 도시의 문화를 공유하고 있다는 믿음을 불러일으켰다. 구경은 개인적인 시각에 의존하는 사사화(私事化)된 행위가 아니라, 집단적 감수성과 상상력을 가능케 하는 사회관계 안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근대적 시각 체험과 구경이라는 취미의 내면화는 식민지 시대 내내 주기적으로 활용되었다. 1920년대 초반에 대중들의 주말 여가와 취미 중의 하나로 가장 유행했던 것이 '창경원 구경'과 '꽃놀이', 즉 '관앵회(觀櫻會)'였다. 관앵회는 근대적 일본 취미가 유입되어 정착된 놀이문화였다.⁵¹⁾ 1921년의 창경원(昌慶苑) 관람자가 평일에는 2~3천 명 정도였고, 일요일에는 6~7천 명에 달했다.⁵²⁾ 순종 붕어(崩御) 1년 후인 1927년, 창경원은 일반인에게 연중무휴 개방되면서 본격적인 유원지화(遊園地化)를 거치게 되었고 관객 수는 급증했다. 창경원 관람과 사쿠라 꽃구경이라는 근대적 문화향유의 행위는 이미 1910년대부터 일제가 의도적으로 조장한 것이었다. 유원지뿐만 아니라 조선의 명승고적이 관람 취미의 대상이 되었다.

취미와 오락이 생산·소비되는 또 다른 대표적 근대 공간 중의 하나로 '극장'이 자리했다. 극장은 영화와 연극 외에 강연회, 연주회, 독창회, 판소리와 무용 등 각종 전통연희 공연이 뒤섞여 공존하는 장소였다. 극장은 공연마다 관객의 세대와 계층, 사상과 취미에 따라 새로운 관객성(spectatorship)이 구축되는 다성성(多聲性)의 공간이었다. '극장가기'라는 문화적 실천은 근대적

문화 공간에서 집합적 군집(群集)을 체험하게 해주었고, 1920년대 이후 동시대 군중들을 대중문화의 소비주체(消費主體)로 전면 등장시키는 밑거름이 되었다. 1912년부터 14년 사이에 기치를 올리며 문화계를 장악하다가 15년 이후 그 기세가 누그러졌던 '신파극'⁵³⁾은 1920년대에도 대중연극계에서 꾸준히 명맥을 이어 갔다. 1920년대가 되면 '활동사진'이 문화계의 패권을 차지했다. 1926년 2월 한 달 중에 경기도 경찰부 보안과에서 검열을 거친 서양영화가 무려 249권에 달했다고 하니 가히 '춤추는 외화의 시대'였다.⁵⁴⁾ 이미 1926년 한 해 동안 "경기도 내의 관극료 백 만원, 관극인원은 이백십만 이천 여"⁵⁵⁾명에 이르렀으니 "영화는 소설을 정복하였다"⁵⁶⁾라는 최승일의 선언은 과장이 아니었다. 1927년에 50군데였던 영화관이 1930년대에 100여 개로 늘고⁵⁷⁾ 1933년에 590만이던 연간 영화관객수는 1934년에 650만 명, 1935년에는 880만 명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⁵⁸⁾ 이제 대중들은 '활동사진 구경'을 자신의 '취미'로 꼽는 데 주저하지 않았으며, 특히 여성들은 결혼 후에도 매주 부부동반 극장구경 가는 것을 결혼조건 중의 하나로 내세웠다. "‘헐리우드’ 양키걸들의 올빼미눈같이 변하는 유행계가 우리들의 살림에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활동사진이라는 것이 우리의 오락생활에 있어서 빼놓지 못할 한 모퉁이를 점령하고 있는 것만큼 그 곳의 유행과 배우들의

53) 임성구의 <혁신단>(1911)을 비롯하여 <문수성>, <유일단>, <혁신선미단>, <청년파일단>, <이화단> 등 여러 신파극단의 공연 광고와 기사에서 내걸었던 새로운 연극의 미덕이 바로 '취미(趣味)'였다. 『혁신단』, 『매일신보』 1912년 4월 2일자; 『봉선화 연극』, 『매일신보』 1913년 5월 8일자; 『革新團 演興社에서 公演 『鬼娘毒婦姦計』』, 『매일신보』 1914년 1월 13일자; 『文秀星의 又妨光』, 『매일신보』 1914년 2월 24일자; 『조선문예단출현』, 『매일신보』 1919년 10월 30일자; 『連鎖活動寫真劇 <知> 全五幕』, 『동아일보』 1919년 4월 24일자; 八克園, 『김소라의 『夜聲』을 보고』, 『매일신보』 1919년 12월 25일자.

54) 『동아일보』 1926년 3월 5일자.

55) 『동아일보』 1927년 3월 17일자.

56) 최승일(1926), 『라디오, 스포츠, 키네마』, 『별건곤』 1권 1호, 107쪽.

57) 김종원·정중현, 2001, 『우리영화 100년』, 현암사, 172쪽.

58) 천정환, 2003, 『근대의 책읽기』, 푸른역사, 33쪽.

51) 에드워드 사이덴스티커, 1997, 『도쿄이야기』, 허호 역, 이산.

52) 『우리 사회의 실상과 그 추이』(1912), 『개벽』 11호, 72쪽.

생활이 한 이락이거리가 되는 것은 사실⁵⁹⁾이었다. 관객들은 ‘씨네마팬⁶⁰⁾’이나 ‘영화광(映畫狂)’, ‘극다광(劇多狂)⁶¹⁾’이라는 취미주체로 명명되었고, 연극에서 비롯된 카츄사와 카르멘 신드롬은 유행가음반 시장의 성황으로 이어졌다. 극장은 배우와 가수들을 통해 시각과 청각의 기억을 주도하면서 대중의 감각을 형성했다. 연극과 영화관람, 레코드수집,⁶²⁾ 사진수집은 대중들의 근대적 문화향유의 한 방식이자 팬덤문화의 초기 형태를 구성했다.

1920년대를 통과하면서 식민지 조선의 물질 기반은 식민지하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재정립되었다. 교통, 통신, 의식주 관련 풍속 등 다방면의 물질적 변화는 당대인들의 처세술, 가치관, 인간관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근대적 취미문화는 ‘도시’라는 공간지리적 조건이 상수로 존재할 때 가능한 것이었다. 씨족중심으로 구성된 농촌사회에서는 전근대적인 방식의 인간관계가 여전히 유지될 수 있었던 반면, 고향과 혈연을 등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도시는 새로운 자본주의적 인간관계와 처세술을 요구했다. 1920년대 대중잡지에는 근대적 사교술과 교제에 관한 기사들이 심심찮게 수록되었다. 새로운 도덕률과 처세법에 대한 교양서(敎養書)들이 대량 생산되었고, ‘성공’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형성되었다.⁶³⁾ ‘취미’는 성공을 향한 근대적 교제의 중요한 수단이자 기준으로 제시되었다.

일간지와 대중잡지에 실린 취미 기사들을 중심으로 취미담론을 면밀히 살펴보면, 1920년대와 30년대를 거치면서 근대인들의 일상과 인간관계가 ‘취미’라는 ‘표상’을 통해 꾸려지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일상은 “매일 반복되고 무의식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의 몸에 각인된 것”으로, “반복되고 무의식적으로 체화된 것을 잘라낸 단면 속에서 구조나 제도, 또는 지배정책을 재

발견⁶⁴⁾하게 한다. 1900년대 이후 등장한 취미는 근대적 삶의 양태로 제시되면서 문명인의 인격과 품성, 근대적 지식과 삶의 차원, 근대인의 직업과 취미의 상관관계 등을 다소 관념적인 차원에서 소개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1920년대가 되면 취미는 구체적인 활동과 실천을 지시하면서 현실에서 소비되었고, 자본주의적 대중문화 아래서 다수의 사회적 현상과 유행을 만들어 냈다. 1920~30년대에 대중들의 삶과 욕망을 재단하는 척도 중의 하나였던 취미담론을 분석하면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취미가 “근대인임을 증명하는 하나의 조건”이 되었다. 취미가 개인의 개성과 특징을 함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으면서, 평범한 일반인이 자신의 ‘출신학교’, ‘직업’과 함께 ‘취미’를 밝히는 것이 근대적 사교 매너로 정착한 것도 이 무렵이다. 자아관을 세우고 각자의 개성에 따라 취미를 향유하는 것이 근대인의 전형으로 간주되었다.⁶⁵⁾ 그리고 “취미가 무엇이나”가 나를 타인과 차별화시키는 “식별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타인의 취미 역시 관심사가 되었다. “취미=인격(personality)”이라는 새로운 믿음은, 연애와 결혼 상대자를 선택하는 일순위 조건으로 ‘취미’를 꼽게 했다.⁶⁶⁾ 취미를 통해 인간관계가 재편된 것이다. 둘째, “모범적 취미생활의 제시”이다. 여전히 서구적 사례가 가장 이상적인 모델로 제시되었고, 각계 인사와 지도층의 취미 생활이 기사화되었다.⁶⁷⁾ 대중들의 선망의 대상인 각계 인사와 유명 배우들의 취미생활 제시는, 대중들 사이에 취미를 확산시키는 강력한 효과를 발휘했다. 셋째, 자본주의와 소비문화가 조장하는 ‘취미있는 생활’은 “의식주의

59) 「씨네마와 유행—활동여배우들의 옷입은 이모양저모양」, 『동아일보』 1933년 11월 1일자.

60) 『조선일보』 1924년 11월 28일자.

61) 무명초(1931), 「생명을 좌우하는 유행의 마력—무명」, 『신여성』 5권 10호, 64~67쪽.

62) 장유정, 2004, 『일제 강점기 한국 대중가요 연구—유성기 음반 자료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7쪽.

63) 천정환, 앞의 책.

64) 정근식, 2006, 「식민지 일상사 연구와 기록영상의 활용」, 『기록영상으로 보는 근대의 풍경』, 한국영상자료원 기록영상기획전 학술세미나 자료집, 13~14쪽.

65) 염상섭, 1925, 「내가 여학교를 졸업한다면: 먼저 가정을 정리하고」, 『신여성』 제3권 3호, 19쪽; 신식, 1926, 「서울로 류학간 딸에게」, 『신여성』 4권 4호, 29쪽.

66) 북웅생, 1930, 「청춘남녀들의 결혼준비」, 『별건곤』 5월호, 8쪽.

67) 「내가 본 명사의 자아관」(1930), 『별건곤』 6월호, 56~59쪽; 이춘강, 1924, 「나는 이런안해를 바랍니다」, 『신여성』 2권 5호, 60쪽; 양케이트 「남편에게 대하여 사모하는 점」(1926), 『신여성』 4권 6호, 27쪽.

차원'도 변화시켰다.⁶⁸⁾ 자신의 취미를 발휘하게 되는 의식주의 면면이 근대적 스타일로 고착되었는데, 이때 취미는 많은 경우 소비활동과 관련되었다. 넷째, 대중문화와 유행의 장에서 부박(浮薄)하게 소비되는 취미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형성되었다.⁶⁹⁾ 또 계급의식에 기반한 프롤레타리아 취미담론이 등장했고, 고급/저급의 취미담론으로 분화되는 양상으로 보였다.

김남천의 소설 『사랑의 수족관』⁷⁰⁾에서 여주인공은 “내가 김광호에게 마음이 쏠리기 시작한 것은 그의 건강한 용모와 그의 언어와 동작에 반한 때문일 것이다. 언어와 동작에 나타난 것—그것은 그의 취미요, 그리고 교양이 아니었는가?”라고 자문한다. 연애 상대이건 결혼 상대이건, 이 시기의 개인들이 타인에게 끌리고 타인과의 지속적인 교제를 하는데 필수적인 조건 중의 하나가 ‘취미’였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1920년대 이후 개인의 “몰취미”와 “무취미”⁷¹⁾는 인격을 의심케 하는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사람들은 “다취미”한 남녀가 만나서 “사랑과 공경이 조화”된 가정, “취미와 오락의 조화”⁷²⁾가 있는 가정을 꾸리고 싶어 했다. 근대 스위트홈의 기본이 되는 남녀 간의 결합과 근대적 가정생활 조건에 ‘취미’가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 잡은 것이 바로 이 시기였던 것이다.

취미는 대중문화의 장에서 상업주의적 유행 풍속으로만 사회에 자리매김한 것은 아니었다. 사적 영역이라 할 ‘감각’이나 ‘개성’으로서의 취미가 일상을 규정하는 하나의 관행으로 정착한 데는, 근대인을 육성하는 “학교 교육”의 영향력이 컸다. 학교 교과과정에서 제일 우선으로 꼽히는 과목은 1910년 이후 1930년 중반까지 주당 1시간의 교육시수를 할당받은 <수신(修身)> 과

목이었다.⁷³⁾ 오늘날의 <도덕> 교과에 해당하는 <수신> 교과의 수업시수는 비록 주당 1시간에 불과했지만, 천황제 이데올로기와 유교적 덕목 등을 교육하는 정신적인 측면을 담당하는 교과였기 때문에 전(全)교과 중에 가장 선두에 놓이는 위상을 부여받았다. 그리고 중등 이상의 <수신> 교과에는 반드시 ‘취미(趣味)’의 장(場)이 포함되어 있었다. 교과 내용 안에 ‘취미’가 설정되어 있었고, ‘학적부(學籍簿)’라는 공식적인 기록문서에 ‘취미’ 기입란이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1920년대 중반에 발행된 조선총독부 편(朝鮮總督府 編) 『고등보통학교수신서 권삼(高等普通學校 修身書 卷三)』⁷⁴⁾과 동경(東京)에서 발행된 문부성 검정서(文部省 檢定書) 『중학수신(中學修身)』,⁷⁵⁾ 조선총독부 편 『사범학교수신서 권삼(師範學校 修身書 卷三)』⁷⁶⁾을 대상으로 해서, <수신> 교과서의 취미 교육을 비교·고찰하였다. 『개정 중학수신』과 『고등보통학교수신서 권삼』의 교과서를 대조한 결과, ‘취미’를 다룬 장의 내용이 거의 동일함을 확인할 수 있다. 『사범학교수신서 권삼』의 “제22과. 교사의 취미와 건강” 역시 기본적인 서술내용은 동일하되, 피교육자가 장래 교사임을 감안하여 교사로서의 덕목을 강조한 특이점이 있다. 『개정 중학수신』⁷⁷⁾ “제17과 취미”를 통해 공교육에서 정의하는 ‘취미’ 개념과 ‘취미교육’의 가치를 보면, ‘취미’는 직업노동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근대인에게 필수적인 가치로 상정되어 있다. “활동을 하면 피로가 생기고, 그 피곤이 누적되어 몸 안에 쌓이게 되면 결국 일을 하는 것이 싫어지게 될 텐데 “그런데도 일을 계속하면 건강을 해치게 되고, 그것은 장래의 진보를 방해하고 만다”⁷⁸⁾는 논리에서였다. 취미는 품성을

68) 김기영, 「가정생활의 개선 (8)」, 『동아일보』 1921년 4월 13일자, B기자, 1933, 「당대여인 생활탐방기」, 『신여성』 7권 7호, 59~69쪽.

69) 쌍S생, 1929, 「대경성광무곡」, 『별간근』 1월호, 76쪽; 박로아, 1931, 「여학생의 취미검토」, 『신여성』 3권 3호, 72~74쪽; 울금향, 1933, 「당세여학생독본」, 『신여성』 7권 10호, 68쪽.

70) 김남천, 「사랑의 수족관」, 『조선일보』 1939년 10월 22일자.

71) 김기영, 앞의 글.

72) 이성환, 1931, 「내가 본 원만한 가정소개」, 『신여성』 5권 11호, 66쪽.

73) 1930년대 후반에는 황국신민(皇國臣民) 교육의 강화를 목적으로 <수신(修身)>과목 시수(時數)를 매주 2시간으로 늘렸다.

74) 朝鮮總督府 編, 1923, 『高等普通學校 修身書 卷三』.

75) 友枝高彦, 1925, 『改訂 中學受信』, 富山房.

76) 朝鮮總督府 編, 1925, 『師範學校 修身書 卷三』.

77) 友枝高彦, 1925, 『改訂 中學受信』, 富山房.

78) 友枝高彦, 앞의 책, 85쪽.

깨끗하게 하고 인격을 원만하게 발달시켜 주기 때문에 취미를 기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취미가 이해(利害)와 타산(打算)을 잊게 하고 격심한 생활에서 벗어나⁷⁹⁾게 해준다는 것이다. 그래서 취미가 없는 사람은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인품이 비천해지지만, 취미를 기르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흠모를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다.

이와 같은 교과내용의 학습과 더불어 '취미'는 학생들의 능력과 학업성취도를 평가·기록하는 장으로 이어졌다. 학교는 학적부(學籍簿)를 통해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학생의 동태와 신상정보를 관리했다.⁸⁰⁾ 당시 학적부 양식을 보면, 학생의 가정환경, 출결 상황, 각 과목 성적, 성행 개평(性行 概評), 신체 상황, 졸업 후 진학과 취업 희망 등을 기록하게 되어 있다. 『학적부정의(學籍簿精義)』⁸¹⁾에 따르면, 학적부의 '성행 개평(性行 概評)'란에 기재해야 할 내용으로 '성격', '재간(才幹)', '악벽(惡癖)', '장애(障礙)와 이상(異常)', '취미(趣味)와 기호(嗜好)', '언어, 동작 및 용자(容姿)' 등이 거론되었다. '성행개평'란에 기재해야 할 '취미와 기호' 항목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다. 취미는 "개인의 성격"과 "사회적 환경"이라는 두 측면에서 영향을 받는다. 기호는 비교적 감각적이고 물질적인 것을 좋아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취미와 기호 모두 학생의 성격과 재간, 소질 등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둘 다 정신적인 영역과 관계되어 있다. 사색적이거나 우울한 성격은 독서나 고안(考案), 공부를 좋아하고, 활동적이고 외향적이며 담즙질적인 성격은 스포츠나 신체적 활동, 통솔적 행동을 좋아한다"며 사례와 유형이 제시되었다.⁸²⁾ 『학적부정의』는

79) 友枝高彦, 앞의 책, 86쪽.

80) 학적부 양식은 일본과 조선이 다르지 않았고, 학적부 양식이 개정되면 교사들에게 학적부 개정과 관련한 다음과 같은 지침서가 내려졌다. 이 책 서두에 구양식과 신양식이 도안이 실려 있다. 乙黑武雄·關寬之 共著, 1938, 『(改正)學籍簿精義』, 東洋圖書株式合資會社; 오성철, 2000, 『식민지 초등교육의 형성』, 교육과학사에서도 학적부 양식을 볼 수 있다.

81) 교사를 위한 지침서로 학적부의 중요성, 공적(公籍)으로서의 학적부의 의미, 학적부 기입 요령들이 서술되어 있다.

82) 乙黑武雄·關寬之 共著, 앞의 책, 165쪽: “思索的な憂鬱質的な性格の者は讀書や考案や工

교사들에게 학생의 취미와 기호를 추론해서 쓰면 안 된다고 지적하고, 정확한 파악을 위해 학생의 부모와 형제들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한다고 부기했다. 또 “학술적인 관찰의 방법으로 질문지법(質問紙法)”을 추천했고, 질문지를 통해 취미와 기호를 알아 낼 경우 응답자의 “허세와 허위의 응답”을 막기 위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동일한 목적의 질문을 형식을 바가면서 물어야 한다는 조사 요령을 첨부했다. 이렇듯 치밀하고 과학적인 방식을 동원해서 학생들의 취미와 기호를 파악하고자 한 것은 식민지 교육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함이자, 국민-만들기의 구체적 전략 중 하나였을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이렇게 교육제도와 결합하면서 '취미'는 공식적인 가치를 보증받았다. 교과과정을 통해 '취미'가 교육되었고 학적부와 같은 공적 기록을 통해 '취미'는 일개인의 이력(履歷)과 특징(特徵)을 표상하는 항목이 되었다. 그리고 사회의 다른 한편에서는 대중문화가 대중의 기호를 선도하면서 구체적으로 '취미'를 제시하고 권유한 것이다. 결국 '좋은 취미'란 일정한 관습 속에서 대상의 미적 자질을 식별하는 기준을 의식적으로 익히는 것으로, 각자의 소질과 관심을 좋은 취미에 맞춰 가는 학습과정을 통해 부단히 만들어지는 것이었다. 그 때문에 '취미'는 무엇보다도 '교육'의 문제였다.

5. 나오며

이상에서 본 연구는 근대 초기 한국에서 '취미'의 개념이 정착하고 취미의 근대적 가치가 분화되면서 대중문화와 연동해 간 맥락을 살펴보고자 했다. 개화기 이후 1920년대까지가 '취미' 개념의 정착과 문화의 형성시기였다면,

夫を好むが、活動的な外向的な葦汁質の如き性格の者はスポーツや身體的活動や統率的行動を好むが如きである”.

1930년대에 이르러 취미는 대중문화의 성장과 함께 급속도로 분화되었다. 담론의 차원에서는 '신문화'와 '개조'라는 시대정신이 현현되는 방식으로서의 '취미성(趣味性)'이 강조되었지만, 현실의 차원에서는 즉흥적이고 감각적인 '오락성(娛樂性)'이 대중의 일상과 취미문화를 장악해 갔다. 식민지 시기 동안 시간이 흐르면서 더욱 강력해진 통치 권력 하에서, '취미' 개념은 공통의 취미를 공유하는 '집합적 주체'와 사적 일상, 미시적 존재로 함몰해 가는 '개인' 사이에서 줄타기를 했다. 그런데 한 번쯤 짚어야 할 사실은 식민지 시대의 전조선인을 대상으로 할 때 실제로 '취미'라는 문화적 실천기제 안에서 취미생활을 향유할 수 있었던 사람은 소수였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매체와 일상의 언어생활 안에서 취미가 전면적으로 발화되고 취미담론이 반복적으로 생산되면서 '취미'가 "시대의 대세"라고 믿게 만드는 사회적 분위기가 주도되었다. 근대적 사상과 외장을 통해 만들어진 새로운 '취미주체'의 기준은 '담론'으로 형성되었지만, 담론은 의식적·무의식적으로 '근대적 개인', '나다운 나'라는 표상을 구축하고 압박하기에 충분했다. 앞서 살펴본 대로 근대적 '취미'를 향유하는 문화주체를 상상하고 계몽, 교육하는 과정은 비정치적 일상의 영역에서 식민지 한국인이 근대적 '개인'으로 구성되어 가는 맥락을 제시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제국인과 식민지인의 접하는 취미의 현실적 국면은 다를 수밖에 없고, 계급적·계층적 외연에 따라 질적 차이가 있었을 것이다.

일제 말기가 되면 취미 담론은 표면적인 변화의 과정을 거친다. 1938년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이 시행되고 1939년 "비상시 국민생활기준 양식" 등이 선포되면서,⁸³⁾ 취미와 문화 소비의 장에 통치 권력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였기 때문이다. 남자들의 머리는 '丸髻'⁸⁴⁾가 권장되었고 퍼머넌트, 화장, 예복 등이 금지된 것은 물론 영화의 배급권⁸⁵⁾과 같은 문화산업 메커니즘을 일제가

장악했다. 취미오락을 포함한 풍속의 영역과 문학·연극·영화·미디어 등 각종 문화제도에 대한 관리와 통제의 원리가 일관적이지 않았고 그 효과 또한 제국의 전략과 어긋나는 경우가 많았지만, 취미 문화는 총력전체제 하에서 또 한 번의 문턱을 만들어 냈다. 이후 해방과 건국, 전쟁과 분단,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치면서 한국의 '취미' 개념은 여러 번의 결절점과 문턱을 만들어 냈을 터이다.⁸⁶⁾

식민지 시대에 구축된 취미 개념은 무엇보다도 오늘날의 취미 문화를 분석할 수 있는 척도들을 선취하고 있으며 현재적 모습을 되비쳐 주는 반사경으로 유효하다는 점에서 문화사적 의미를 갖는다고 본다. 근대의 취미문화에는 서구의 황금비율과 같은 미적 균형의 취미양태나 지식인의 취미와 같은 일종의 모델이 존재했다면, 미적 행위에 대한 다양한 비율이 존재하고 심지어는 비율이라는 척도 자체가 파기된 현대에는 내가 유일한 모델이 될 수 있다. 근대의 취미는 소비와 생활양식의 선호도, 특별한 취향 등과 관련되어 문화자본으로 혹은 계급의 지표로 기능했다. 그 과정에 '문명', '교육', '인격', '문화' 등과 같은 근대적 가치가 연동되어 있었다. 그러나 현대의 취미 개념은 공통감각이나 시대의 유행, 문화자본에 따른 분화 등으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파편화되고 있으며, 더 이상 지배문화가 존재하지 않는다. 같은 계급 안에서도 상이한 문화형태와 생활양식이 나타나며, 고급문화와 하위문화의 경계가 사라진 지 오래다. 근대 초기에는 취미가 '가치평가적인 개념'으로 사용되었다면 오늘날은 '분류적인 개념'으로, 개념의 활용양태가 변하고 있다. 특히 현대인들의 취미활동은 취향(미의식)과 계급 중 어느 것에 대한 동경인지 불분명한 채로 돌진하는 경우가 있다. 취미주체들은 그 취미 대상의 사용가치와 분리된 가상의 이미지를 향유하기도 한다. 그런데 진정한 즐거움과 순간적인 도취를 구별하기란 쉽지 않을뿐더러 그 구별 자체가 무

83) 최유리, 1997, 『일제말기 식민지 지배정책 연구』, 국학자료원, 118~119쪽.

84) 뽕뽕 깎은 머리.

85) 유선영, 2005, 『황색 식민지의 서양영화 관람과 소비실천, 1934~1942 제국에 대한 '문화

적 부인'의 실천성과 정상화』, 『언론과사회』 13권 2호, 성곡언론문화재단, 7~62쪽.

86) 표층의 변화와 함께 취미문화는 심층의 영역에서도 지속과 변화의 과정을 거쳤다. 식민지 이후 시기에 대한 고찰은 후속연구로 미루기로 한다.

의미해졌다. 취미오락의 의식적 체험과 이미지 소비의 의식적 즐거움이 제 공하는 정신적인 가치야말로 취미판단을 가능케 하는 '快'의 감정이기 때문에, 현대인의 취미생활과 거기에 부수하는 소비행위가 허위의식이나 자기기만에 빠져 있다는 비판은 옳지 않다. 한편 현대인들은 개인적 '과시'와 '사회 환원'⁸⁷⁾이라는 이질적 의미 층위 안에서 개인의 취미활동을 주체적으로 해석하고 실천하고 있다.

물론 이상에서 언급한 근대와 현대 취미가 갖는 특성들은 시대를 달리하며 분명히 재단되는 특징이 아니다. 다만 변화하는 과정상의 경향성을 짚어낸 것이다. 현대의 취미는 여전히 시대의 '공통감각'과 '개인적 편식'의 함수 관계 안에 놓여 있다. 현대의 취미문화 안에는 전근대와 근대, 탈근대의 현상들이 공존한다. 이렇게 "압착된 세 층위" 위에서 한국 현대의 취미 표상이 갖는 미묘한 편차들을 섬세하게 천착하고 읽어 내는 것이 추후 필자가 해야 할 "한국 취미의 역사성"에 대한 연구임을 밝혀 둔다.

87) 프로보노 활동. 취미생활로 자신이 가진 능력과 재능을 사회에 기부하는 사람들이 등장하였다.

■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1) 개화기 학회지

『기호홍학회월보』, 『대동학회월보』, 『대조선독립협회보』, 『대한자강회월보』, 『대한유학생학보』, 『대한협회회보』, 『대한홍학보』, 『서북학회월보』, 『서우』, 『태극학보』, 『호남학보』

(2) 신문

『독립신문』, 『제국신문』, 『만세보』, 『황성신문』, 『대한민보』, 『대한매일신보』, 『매일신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시사일보』, 『조선중앙일보』

(3) 잡지

『소년』, 『朝鮮』, 『朝鮮及滿洲』, 『청춘』, 『학지광』, 『삼광』, 『태서문예신보』, 『창조』, 『백조』, 『폐허』, 『조선문단』, 『개벽』, 『동광』, 『별건곤』, 『신여성』, 『삼천리』

(4) 기타 자료

『조선왕조실록』

2. 논문

권보드래, 2008, 「1910년대의 새로운 주체와 문화: 『매일신보』가 만든 『매일신보』에 나타난 대중」, 『민족문화사연구』 36호, 민족문화사연구소.

김연순, 1992, 「18세기 독일 계몽주의의 문학사회 고찰」, 『首善論集』 제17집.

박소현, 2004, 「제국의 취미—이왕가 박물관과 일본의 박물관 정책에 대해」, 『미술사논단』 18, 한국미술연구소.

박주원, 2004, 「근대적 '개인', '사회' 개념의 형성과 변화」, 『역사비평』 67호, 역사

문제연구소.

- 송지원, 1994, 「조선후기 중인층 음악의 사회사적 연구」, 『민족음악의 이해』, 민족음악연구회.
- 안순태, 2004, 「남공철의 문예취향과 한시」, 『한국한시연구』 12호, 한국한시학회.
- 유선영, 2005, 「황색 식민지의 서양영화 관람과 소비실천, 1934~1942 제국에 대한 '문화적 부인'의 실천성과 정상화」, 『언론과사회』 13권 2호, 성곡언론문화재단.
- 이상우, 2004, 「양계초의 취미론—생활의 예술화를 위하여」, 『미학』 37호, 한국미학회.
- 장유정, 2004, 「일제 강점기 한국 대중가요 연구—유성기 음반 자료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근식, 2006, 「식민지 일상사 연구와 기록영상의 활용」, 『기록영상으로 보는 근대의 풍경』, 한국영상자료원 기록영상기획전 학술세미나 자료집.
- 정민, 2007, 「18세기 조선 지식인의 자의식 변모와 그 방향(方向)성」, 『조선 지식인의 발견』.
- 천정환 · 이용남, 2006, 「근대적 대중문화의 발전과 취미」, 『민족문화사연구』 30호, 민족문화사학회.
- 한기형, 1996, 「무단통치기 문화정책의 성격—잡지 『신문계』를 통한 사례분석」, 『민족문화사연구』 9호.

3. 단행본/번역서

- 김종원 · 정중현, 2001, 『우리영화 100년』, 현암사.
- 뤽 페리, 1995, 『미학적 인간』, 방미경 역, 고려원.
- 미셸 푸코, 1994, 『감시와 처벌』, 오생근 역, 나남출판.
- 신은경, 2003, 『풍류: 동아시아 미학의 근원』, 보고사.
- 야나부 아키라, 2003, 『번역어 성립사정』, 서혜영 역, 일빛.
- 에드워드 사이텐스티커, 1997, 『도쿄이야기』, 허호 역, 이산.
- 오성철, 2000, 『식민지 초등교육의 형성』, 교육과학사.

임마누엘 칸트, 2005, 『판단력비판』, 김상현 역, 책세상.

_____, 2005, 『판단력비판』, 이석운 역, 박영사.

장파, 1999, 『동양과 서양 그리고 미학』, 유중하 외 역, 푸른숲.

천정환, 2003, 『근대의 책읽기』, 푸른역사.

최유리, 1997, 『일제말기 식민지 지배정책 연구』, 국학자료원.

피에르 부르디외, 1996, 『구별짓기: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상)』, 최종철 역, 새물결.

南博, 社會心理研究所編, 1966, 『大正文化』, 勁草書房, 昭和 40年.

西村清和, 1995, 『現代藝術の哲學』, 産業圖書.

神野由紀, 2000, 『趣味の誕生』, 勁草書房.

友枝高彦, 1925, 『改訂 中學受信』, 富山房.

乙黒武雄 · 關寛之 共著, 1938, 『(改正)學籍簿精義』, 東洋圖書株式合資會社.

朝鮮總督府 編, 1923, 『高等普通學校 修身書 卷三』.

_____, 1925, 『師範學校 修身書 卷三』.

Abstract

Colonial Modern and The Concept of “Taste(趣味)”

Kyoungyeon Moon(Kyunghee University)

■ Key Word : Colonial Modern, Concept of “taste(趣味)”, modern popular culture, translation, enlightenment, taste-fied(趣味化), civilized man, moral training(修身)

This research is premised on the idea that ‘taste(趣味)’ was recognized in the early modern Korea and the new cultural practice of taste developed into a form of modern popular culture.

In the main issue, the origin and influence of the concept of ‘taste(趣味)’ is explored. The ‘taste’ in modern Korea was formed by the influence of the West/Japan and in the context of Korea’s domestic background. The aesthetics of modern West and ‘*taste*’, a concept that summarized it influenced the Meiji Japan, hence, leading to the emergence of the translated term for taste, ‘*shumi* (趣味, しゅみ).’ In various kinds of modern mass media, such as journals, newspapers and magazines that were published in Korea from 1900s, the influence of Japan’s ‘taste’ discourse could be found. The aesthetics and the culture of taste of the new intellectual class in the late eighteenth century were

examined as a precursor that enabled the modern concept of ‘taste’ to emerge. The concept of ‘taste’ partly maintained its traditional usage until 1910s, but it began to expand, dislocate and transform itself, thus manifesting its vitality, with the influence of cultural perspective of the Modern Enlightenment Period and the terms translated from the West(Japan). ‘Taste’ was assured of its modern value as it combined with the discourse of civilization, education, industry or national salvation.

On the one hand, it could be seen that the ‘taste(趣味)’ was used as a technique to control the colony. And school education played an important role for the taste, which was a rather personal or privatized realm of ‘sensibility’ or ‘individuality,’ to become an institution that defined everyday life. Textbook for “Self-Cultivation” included ‘taste’ as a part of its education contents. ‘Taste’ of a student was included in the school register as an item that represented and defined an individual’s character and personal history. The taste that was educated and acquired through education provided the belief that it reflected the modern man’s intellectual capacity and character.

Based on these discussions, it could be seen that ‘taste’ or ‘hobby’ in modern Korea had become an important representation that established ‘the modern individual’s’ existence and identity. It unveiled the context in which modern ‘individual’ was constructed in a political realm of everyday life by exploring the ways which cultural subject who cultured the modern ‘taste’ through the modern popular culture was imagined, enlightened and educated.